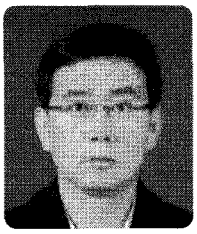
【특집: 구제역 종식 이후 축종별 사료산업 전망】

낙농 사료산업 전망



박 영 수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장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이다. 지난 겨울처럼 추웠던 적이 없다고.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보다 더 추웠던 것은 바로 구제역 사태였고,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얼음보다 더 단단했던 땅속에 아끼던 가축들을 묻어야만 했던 그 날을 견뎌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수많은 농가의 소, 돼지가 매몰처리 되는 비극을 겪었다. 농가는 물론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올바르지 못한 방식의 매몰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비축산인들의 오해 등이 우리 축산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구제역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기에, 앞으로의 축산업, 특히 낙농산업은 구제역을 대비한 철저한 방역의식과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한 젖소를 양성해 내는 것이 구제역으로 부터 안전한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 2011년 낙농산업 전망

1. 젖소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

젖소의 사육두수는 2003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2010년에는 구제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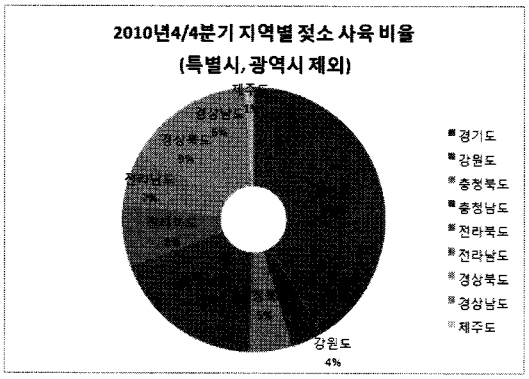
구 분		'07.12	'08.12	'09.12	2010				2011	증 감	
					3	6	9	12	3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리수		453	446	445	449	432	429	430	396	-34	-53
										(-7.9)	(-11.8)
- 가임암소		310	303	304	307	299	297	296	273	-23	-34
										(-7.8)	(-11.1)
연령별	1세미만	91	90	88	88	82	82	83	77	-6	-11
										(-7.2)	(-12.5)
	1~2세	104	104	106	107	102	101	102	93	-9	-14
										(-8.8)	(-13.1)
	2세이상	258	251	251	254	248	246	245	226	-19	-28
										(-7.8)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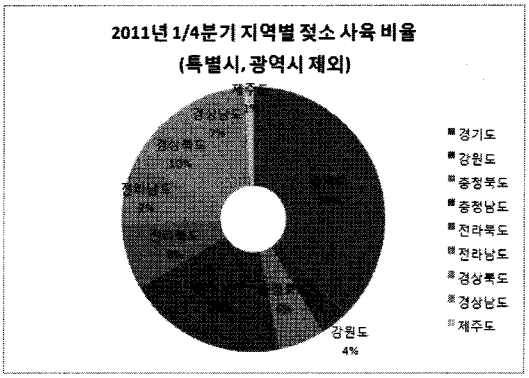
시도별	2010 4/4		2011 1/4		감소량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비율	마리수	비율
전국	**6,347**	**429,547**	**5,969**	**396,466**	**-378**	**-6.0%**	**-33,081**	**-7.70%**
서울특별시	4	120	4	109	0	0.0%	-11	-9.17%
부산광역시	10	656	10	689	0	0.0%	33	5.03%
대구광역시	35	2,106	34	2,078	-1	-2.9%	-28	-1.33%
인천광역시	51	2,769	48	2,594	-3	-5.9%	-175	-6.32%
광주광역시	7	600	7	561	0	0.0%	-39	-6.50%
대전광역시	0	0	0	0	0	0.0%	0	0.00%
울산광역시	14	998	15	998	1	7.1%	0	0.00%
경기도	**2,615**	**174,427**	**2,299**	**146,064**	**-316**	**-12.1%**	**-28,363**	**-16.26%**
강원도	**241**	**16,920**	**216**	**14,202**	**-25**	**-10.4%**	**-2,718**	**-16.06%**
충청북도	348	22,054	342	21,790	-6	-1.7%	-264	-1.20%
충청남도	1,202	79,064	1,168	76,612	-34	-2.8%	-2,452	-3.10%
전라북도	407	31,852	400	31,330	-7	-1.7%	-522	-1.64%
전라남도	388	28,724	386	29,267	-2	-0.5%	543	1.89%
경상북도	600	37,322	590	37,123	-10	-1.7%	-199	-0.53%
경상남도	376	27,262	401	28,367	25	6.6%	1,105	4.05%
제주도	49	4,673	49	4,682	0	0.0%	9	0.19%

의한 것이 컸다. 2011년 1/4분기 (3월 1일 기준) 가축동향 조사에 따르면, 젖소의 사육두수는 396,466두로 전분기 대비 7.9% 감소, 전년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이중 경기도와 강원도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그 감소 비율은 각각 16%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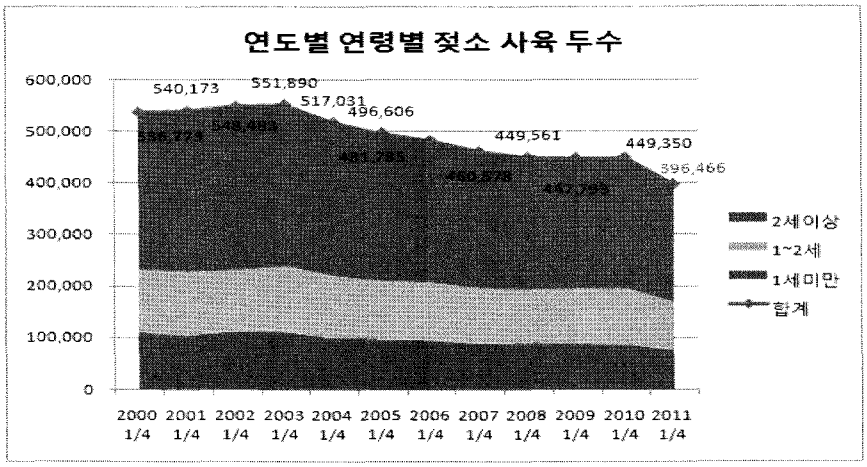
이미 2010년 유래 없는 하절기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젖소들의 산유량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2011년의 원유부족 사태는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젖소 사육두수의 감소 (특히 고능력우의 상실)로 인한 원유부족 상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 도태율 감소로 인한 젖소 사육두수의 소폭 상승 예상

젖소의 생산성 저하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원유 부족으로 인해 (유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쿼터를 해제하고 있다. 원유증산을 위한 자구책중 하나로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쿼터를 해제한 것인데, 이 때문에 농장에서의 3산 이상 다산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도태율이 낮아져 육성우와 착유우의 비율에 변화 (착유우 비율 상승)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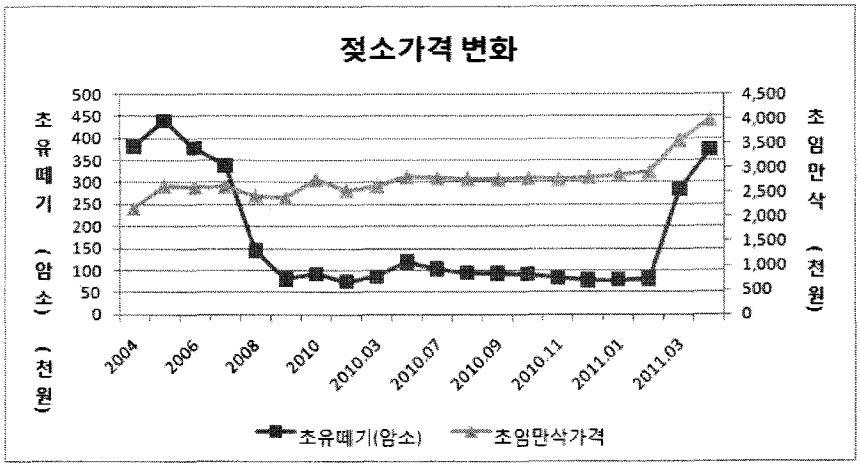


3. 육성우 및 암소의 가격 상승

젖소의 수입에 관한 거론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젖소-초임만삭, 초유떼기의 가격은 급상승 추세에 있다. 2009년 이래로 하한가에 달했던 초유떼기의 가격이 재입식을 원하는 농가 및 사육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농가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원유 증산을 위해 내외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젖소의 가격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가격은 초유떼기의 경우 55만원, 초임만삭의 경우 44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이 장기간 계속 될 우려도 있으나, 배합사료의 원료들의 가격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농가의 보상금 지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입식을 원하는 농가나, 규모 확장을 원하는 농가나 지나친 고가의 젖소 구입은 오히려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가격선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낙농진흥회

■ 2011년 낙농사료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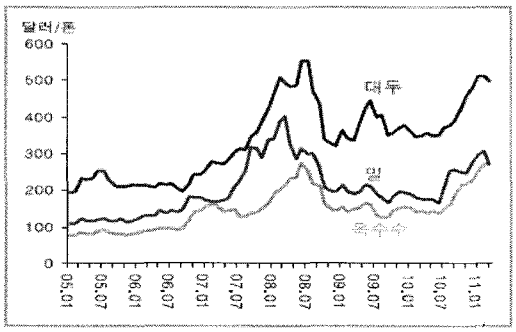
1. 부원료의 꾸준한 가격 상승

가격이 안 오르는 것 찾기가 더 어려운 요즈음의 원재료 시장에서 다른 축종 사료보다 축우사료에서 월등히 많이 쓰이는 원료인 야자박, 팜박도 예외는 아니다.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배합사료의 가격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박의 가격상승은 물론, 최근 비교적 저가에서 형성되었던 소맥의 가격 역시 급등하였기 때문에 가공사료가 많은 축우사료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된 루핀과 루핀피의 경우 축우에게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원으로서 선호도가 높았으나 더 이상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아쉬움을 크게 남기고 있다.

■ 최근 5년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

■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08	'09	'10	2011			전년 대비	전월 대비
				1월	2월	3월		
밀	294	195	213	295	306	269	26.3	-11.9
옥수수	208	147	168	250	272	269	60.1	-0.9
대두	453	378	385	511	512	497	29.1	-3.0

주: 회계년도 기준, 2011년 3월은 1~18일까지의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 4월호

2. 고능력우용 사료 수요 증가

4산 이상의 다산우의 산유량이 1,2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은 축산업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농실정상 평균 3~4산차에 머무르고 있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으나 이번 구제역 사태 이후 쿼터 해지로 다산우의 도태가 지연되고 4산 이상의 다산우들이 힘을 보태 주면 농가에서는 그에 알맞은 고능력우용 사료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사양관리 또한 고능력우에 맞춘 고급 기술의 적용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이 필수로 적용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3. 대용유 및 면역력 강화용 사료 수요 증가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낙농가, 비육우 농가처럼 차단방역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의 운동시간을 늘리고, 햇볕을 쬐게 해주는 등의 방법 등이 제시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료에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늘려주거나 면역력 기능을 특화시킨 신제품 출시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 건강한 2011년을 기대하며

이번 2011년 봄에도 만만치 않은 황사가 예고되고 있다. 사람의 출입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도 큰 걱정이지만, 황사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특히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의 유입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번 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게다가 자꾸 지연되는 농가의 보상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농가나 관련 업계 종사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은 농가 생활의 안정화는 물론, 관련 업계에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비록 땅속은 아직 차갑지만 땅위에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